



제3회 국제중국(광둥)인쇄기술전시회 기자간담회 “새로운 인쇄산업의 중심에서 무한 성장을 경험하라!”

제3회 국제중국(광둥)인쇄기술전시회(Print China 2015 : 이하 프린트차이나2015) 기자간담회가 K-PRINT Week 2014 기간 중인 지난 8월 28일 킨텍스 2전시장 3층 306호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프린트차이나2015’는 2015년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중국 광둥현대국제전시센터에서 14만㎡ 규모(전회 12만㎡ 대비 17% 증가)로 개최되며, 약 1300여 업체가 참석하고 약 18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이날 기자간담회는 서건국 중국인쇄및장비 산업협회 회장의 환영사, 육장안 중국인쇄및 장비산업협회 부회장의 축사, 정세균 중국 국제전시센터그룹 부총재의 축사, 손철병 동완중인협국제전람유한회사 상무이사의 ‘프린트차이나2015’ 준비상황 및 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K-PRINT Week에 방문한 아시아 각국의 인쇄업계 대표 및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린트차이나2015’의 준비 상황과 전시 기간 중에 개최될 다양한 부대행사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프린트차이나2015’ 6대 하이라이트
세계적인 인쇄 행사로 부상하고 있는 ‘프린트차이나2015’는 전시회를 더욱 값지게 만드는 6가지 주요 특징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 폭발적인 참가와 이를 대비한 전시장 증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인쇄기업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지난 6월 15일까지 이미 510여 개의 기업(전시 면적의 80%에 육박하는 11만㎡ 규모)이 온라인 전시 참가 신청을 마쳤으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의 신청이 이어져, 연말에는 모든 부스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광둥현대국제 전시센터는 전시 면적 2만2500㎡ 규모의 3호관 F구역을 증설한 바 있다.

▶ 인쇄업계 유명 브랜드의 적극적 참가

이번 전시회는 세계 각국의 유명 인쇄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한다. 디지털 및 프리프레스 분야에서는 HP, 캐논, 코니카미놀타, 엡손, 파운더 등이, 인쇄장비 분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KBA, 고모리, 로랜드, 한스그론헤, 당가, 상하이전기, 노던그룹 등이, 패키징 분야에서는 BOBST, 텐진EVA, 콜버스, 웨이유, YOCO, 웨이유,



서건국 중국인쇄및장비산업협회 회장



육장안 중국인쇄및장비산업협회 부회장



정세균 중국국제전시센터그룹 부총재



손철병 동관중인협국제전람회유한회사 사무이사

JDM 등이, 라벨인쇄 분야에서는 에어로스페이
스화양, 이스팅, SONDER, 웨이강, 세루티 등
이, 인쇄재료 분야에서는 아그파, 아이스카이,
CGS, 코나타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 세계 각국 대표 대규모 전시단 결성

‘프린트차이나’의 영향력이 날로 제고됨에 따
라 국제화도 갈수록 향상되며, 각국 인쇄협
회와 단체들은 대규모 전시단을 구성해 참가
할 예정이다. 한국전시단을 비롯해 독일전시
단, 인도전시단, 대만전시단은 이미 전시회
출품을 확정했으며, 이외 영국, 이탈리아 등
도 전시단을 조직해 참가하는 것에 대해 조직
위와 긴밀하게 상담하고 있다.

▶ 풍성한 콘텐츠 다채로운 부대행사

전시회 기간 중에는 제3차 국제인쇄기술발
전포럼(Forum-PT 2015), 제5차 중화인쇄
제품시상식(The 5th China Print Awards
Ceremony), 아시아인쇄전시연합(Asia
Print) 제5회 연합대회, 글로벌인쇄연합
(Global Print) 사무총장 회의 등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친환경,

표준화, 패키징, 라벨 분야의 다양한 포럼과
기술교류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 기간 연장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전시 참가 업체들과 전문 바이어들이 더욱 충
분한 시간을 이용해 무역상담과 기술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부터
기간을 5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전시 업체들과 전문 바이어들이 순도
높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적이고 국제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 비즈니스와 무역 연결 플랫폼 구축

플랫폼을 구축해 전시 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에
게 적합한 비즈니스와 무역의 연결 서비스를 제
공하고 무역상담을 진행한다. 조직위원회에 신
청한 구체적인 구매 의향이 있는 해외 바이어
또는 대외 무역 수요가 있는 전시 참가 업체들
의 현장 상담을 알선한다. 전시참가업체가 각
국의 인쇄협회와 상담할 의향이 있거나 해외 바
이어와 현장 상담을 진행할 것을 기대할 경우,
조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전시참가업체를 조
직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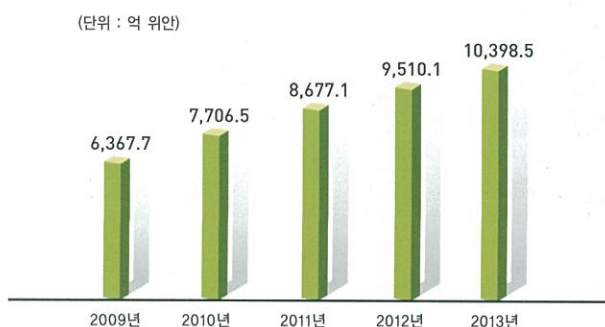
풍부한 자원 편리한 교통

‘프린트차이2015’가 개최되는 동완시는 홍콩,
마카오와 인접하고 주강삼각주 인쇄산
업단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1개의 고속철
도, 3개의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어 교통이 매
우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 허우제전시센터
3호관 광장에 전시센터역을 설치해 전시업체
들과 바이어들의 전시참가 및 참관이 편리하
도록 했다. 동완을 중심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홍콩, 마카오, 광주, 심천, 주해 등 5대
국제공항이 세계 각지와 연결돼 있다.

공식 웹사이트 통한 비자 초청 가능

해외 바이어들의 비자와 초청장 취급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식 웹사이트
(www.printchina.org)를 통해 비자 초청서
온라인 신청 업무를 대행한다. 10월부터 해
외 바이어들은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를 온라
인으로 제출하면 조직위원회의 담당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접수해 처리한다. 이번 조치는
업무 효율을 크게 제고시키고 더욱 많은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되
는 것으로 무료로 지원된다.☞

최근 5년간 중국 인쇄산업 총생산액



차이나프린트 전시 규모 및 관중 현황

